

장애인의 성공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임진이**

**한경국립대학교 제품공간디자인과 교수

Strategies for Applying Universal Design to Successful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Jeanny Lim*

*Professor, Department of Product and Spatial Design,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5년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권리 중심’ 패러다임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용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들의 단순한 학습 기회의 제공을 넘어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을 위한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여전히 낮은 참여율과 취미·여가 중심의 질적 불균형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선행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되는 ‘성공적인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은 과거의 시혜적 복지 관점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자립과 경제 활동을 견인하는 ‘생산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 기술이자 철학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규명하였다. 둘째, 성공적인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물리적 환경(BF), 교육 과정(UDL), 디지털 플랫폼(Web UX)의 세 차원에서 통합적인 UD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증가를 반영하여 시력 저하와 인지 감퇴를 보완하는 고도화된 인터페이스 설계와 반응 시간 보장 등 시니어 맞춤형 UD 요소를 강조하였다. 셋째, 대학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를 활용한 ‘대학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원’이 교육-고용-복지를 잇는 전달체계의 허브(Hub)로서 최적의 거점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장애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게 하는 강력한 실천 전략임을 시사한다. 연구의 결과는 2027년 ‘장애인평생교육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UD 기반의 교육 환경 가이드라인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이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사회적 기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평생교육원, 디지털포용성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Universal Design (UD) can be applied to promote th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paradigm set forth in the 2025 Lifelong Educ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hough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for social inclusion and self-actualization, the field currently faces challenges, including low participation rates and a qualitative imbalance that predominantly focuses on leisure and hobby activities. Therefore, using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successful lifelong education model,” in which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form a virtuous cyc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shift from a charity-based welfare perspective to “productive welfare” that fosters learners’ independence and economic activity, with UD introduced as an essential techn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Second, to achieve successful lifelong education, integrated UD application strategies were derived across three dimensions: the physical environment (Senior UD), the educational curriculum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and digital platforms (Web UX). In particular, advanced interface designs and guaranteed response times were emphasized as senior-specific UD elements to compensate for visual and cognitive decline, reflecting the rapid increase of the older adult disabled population. Third,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s, utilizing specialize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erve as optimal hubs for the delivery system, linking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This study suggests that UD is a powerful practical strategy that guarantees the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vercomes social exclusion. These findings may serve as an important policy resource for establishing UD-based educational environment guidelines and training professionals ahead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ull-scale implementation in 2027. UD will serve as a core mechanism for creating an inclusive lifelong learning ecosystem that empowers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grow as active social contributors rather than mere beneficiaries.

Key words: universal design,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centers, digital inclusivity

* 이 연구는 이원희 교수(제8대 한경국립대 총장)의 학문적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한경국립대학교 제품공간디자인과 교수, 제1저자 및 교신저자(uddesign@hknu.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인식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중대한 정책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단순한 학습 기회의 제공을 넘어,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이자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필수 기제로 기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5년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기존 ‘평생교육법’의 선언적 조항을 넘어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의 법적 의무로 명시한 독립법으로서 중대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는 대다수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취미나 여가 활동 등 소비형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직업 연계로까지 확장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습득한 역량을 실제 직무 현장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간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는 물론, 교육 정보에 접근하고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환경의 보편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교육 콘텐츠 접근성 확보, 정보 환경의 문턱을 낮추는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원이 단순한 교육 시설을 넘어 ‘직업 연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물리적 UD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구인·구직 정보 접근성(Web UD) 및 직무 교육 도구의 UD가 유기적으로 통합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특징을 이해하는 커리큘럼 구성과 난이도 조절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또한 물리적·정보적·학습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직업 교육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교육적 소외와 고용 장벽을 양산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보건복지부, 2023)에 불과하여, 일반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인 32.3%(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에 비해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낮은 학력 기반,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의 미비, 그리고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부재가 주요하다(최진아, 이상무, 2025). 또한,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특정 장소에 방문해야 하는 집합 교육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격 강좌의 비율은 10% 미만(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평생교육 참여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시간 부족과 이동의 어려움, 근거리 교육 시설의 부재가 4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이미현, 박성지, 2018)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차원에서 다양한 적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2025년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UD)의 적용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순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평생교육’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국내외 장애인 평생교육 및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최신 법령, 정책 자료,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또한 국내외의 자료를 종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효과적인 모델을 제안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의미와 내용

2025년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2027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본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법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시혜적 차원의 복지 서비스로 인식되던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편적 권리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 특히 교육의 성격을 기존의 단순 여가 및 취미 활동 중심에서 자립과 실질적 고용으로 이어지는 ‘생산적 교육’으로 정의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포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그 단초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법이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권리 보호라는 ‘복지적 접근’에 무게를 두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 신설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성과를 직업 교육 및 고용 연계와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더욱 강력한 법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국가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장애인평생 교육에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다. <표 1>은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 나타나는 주요 내용이다.

<표 1>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항목	조항	내 용
평생교육권 보장	제3조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할 책무를 가진다.
전달체계 구축	제15조~제17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 센터 및 시·군·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직업 및 고용연계	제19조	자립 생활과 취업 및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한다
개인별 지원계획	제22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별 평생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편의시설 및 접근성		교육시설 설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및 학습에 적합한 시설·설비 구비를 의무화

1) 권리 기반의 패러다임의 전환

과거 장애인 평생교육은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교육의 기회 또한 시혜적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경국립대학교 장애인평생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과 일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되며 선도적인 실천 사례를 제시해 왔으나, 이는 특정 기관의 역량에 의존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독립성과 보편적인 교육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2025년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시혜적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교육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인 학습자가 자신의 교육적 욕구에 따라 권리를 요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권리 중심(Rights-centered)’ 체계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학습 기회를 향유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하며 시민적 권리를 실현하는 법적·윤리적 근거가 된다. 즉, 교육은 더 이상 선택적 배려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로 재정의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 유형별 특수성과 학습권을 온전히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공급자 편의 위주의 수동적 운영 방식이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UD)을 적용하여 물리적·디지털 장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실천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이자, 본 연구가 지향하는 성공적인 평생 교육 모델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평생교육법과의 장애인평생교육의 연계성

기본법인 ‘평생교육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초석이라면,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이 가진 신체적·인지적 특수성과 개별성을 반영하여 제정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교육의 형식적 기회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영역을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성인진로개발역량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의 7대 영역으로 규정하며 평생학습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26).

그러나 실제 현장의 양상은 이러한 법적 정의 및 보편적 권리의 선언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장애인을 비장애인 중심의 기존 평생교육 체계 내에 무조건 적으로 병합시키는 ‘기계적 통합’이 오히려 학습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장애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s)과 환경적 수정 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교육의 균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비장애인 중심의 교수 매체, 난해한 어휘로 구성된 학습 텍스트, 보조공학적 고려가 결여된 디지털 플랫폼은 장애인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좌절감을 안기며, 결과적으로 인지적·심리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 즉, 준비되지 않은 통합 환경은 장애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장벽을 재생산하여 ‘통합을 통한 배제(Exclusion through Integration)’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계적 통합의 한계와 장벽은 구체적인 통계적 실재를 통해 더욱 명확히 증명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일반 성인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러한 양적 격차와 더불어 교육 내용의 질적 불균형 또한 고착화되어 있다. 『한국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2024)』에 따르면, 전국의 1만 5,053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교육이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학력보완교육은 5.4%, 성인문해교육은 5.5%, 직업능력향상교육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순영, 조창향, 김시현, 2025).

이러한 수치는 현재의 장애인 평생교육이 여가와 취미 중심의 ‘소비형 교육’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직결되는 직업 교육 및 학력 보완이라는 ‘생산적 교육’ 영역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음을 실증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일반적인 평생교육 체계 및 운영 방식만으로는 장애인이 직면한 물리적·디지털적 장벽과 실질적인 교육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평생교육의 전문적 방법론을 수용함과 동시에, 유니버설 디자인(UD)을 비롯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평생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의 6대 영역 및 특성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의 기준은 ‘평생교육법’ 제2조 1호를 중심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등 고시'와 제5조 교육과정의 기준에서 명시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 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교육부, 2019).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요구와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각 영역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보완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인이 검정고시나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인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는 고등교육 체계로의 진입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술적 성취감을 고취하고 자아존중감 향상에 결정적으로 기여 한다.

둘째, 성인문자해독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문자 해독 능력과 기초 산술 능력을 함양하는 단계이다. 이는 과거 사회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상실했던 장애인 학습자들에게 사회 참여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인권적·복지적 의의가 크다.

셋째, 직업능력향상 교육은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성공적인 평생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기술과 직무 역량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고용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UD) 기반의 학습 및 직무 환경 구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인문교양교육은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과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자아를 성찰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위축될 수 있는 장애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확립하고, 내면의 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가치관을 주체적으로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섯째, 문화예술 교육은 예술이나 체육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영역이다. 이는 장애인이 문화 향유의 객체에서 창작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며, 최근에는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자립으로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여섯 번째, 시민참여교육은 장애인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및 공동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는 장애인의 권익 옹호(Advocacy)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여, 실질적인 시민적 주체성을 현장 실천을 통해 구현하는 사회 통합의 핵심 기제가 된다.

〈표 2〉 장애인평생교육과 평생교육의 영역 및 특성 비교

	평생교육(7대 영역)	장애인평생교육(6대 영역)	주요 차이점 및 특성
1	학력보완교육	학력보완교육	학력 증진 지원 및 맞춤형 학습 자료 제공 강조
2	성인문해교육	성인문자해독교육	문자해독 중심으로 점자, 수어 교육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교육 포함
3	직업능력향상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직업 재활, 장애 맞춤형 직무 교육 및 지원 고용 프로그램 중심
4	성인지로개발역량 향상교육		발달장애인평생교육 미포함
5	인문교양교육	인문교양교육	삶의 가치관을 주체적으로 정립하는 데 중점
6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영역
7	시민참여교육	시민참여교육	장애인의 권리, 사회통합을 위한 주체성 구현

4) 장애인 평생교육의 고용과 복지 연계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는 교육의 성과가 단순히 학습의 종료에 머무르지 않고, 고용 및 복지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법적으로 명시하는데 있다. 이는 평생교육을 통해 습득한 역량이 실질적인 직무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고용 지원 부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능동적인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법적 기틀은 평생교육이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견인하는 ‘복지-교육-고용 통합형

모델'로 작동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합적 모델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사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운영자를 넘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핵심 주체이자 학습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교수자(Instruc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학습자의 장애 특성과 개별적 요구를 파악하여 최적의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조력자이자 협력자로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책임지는 전문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고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공적인 고용 연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실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정연수, 2025).

5) 대학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원의 역할

‘장애인평생교육법’의 핵심 지침 중 하나는 장애인의 다양한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별 특수한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김기룡 외, 2025). 이는 학습자의 신체적·인지적 특성과 생애 전환기별 직무 욕구를 고려한 정교한 교육 설계를 지향하며, 교육의 결과가 단절되지 않고 사회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 장애인 평생교육원은 교육, 고용,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달체계의 허브(Hub)’로서 기능하며, 각 학습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 교육과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학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원은 일반 교육 시설이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 인력과 고등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김영준, 2022). 대학은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수법을 개발하고, 최신 보조공학 기술이 접목된 유니버설 디자인(UD) 교육 환경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이다. 이러한 전문적 기반은 대학 부설 교육원이 단순한 지식 전달의 차원을 넘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진로 설계 및 직무 훈련을 수행하는 ‘고등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한다.

특히 대학 부설 교육원의 인프라는 장애인 학습자가 학령기 이후 성인기나 노년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교육적 공백을 메우고, 실제 산업 현장의 요구와 일치하는 실무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 실습과 고용 지원 시스템의 결합은 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인 경제 활동으로 전이시키는 핵심 동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대학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원은 UD 기반의 혁신적인 교육 환경 조성 및 다학제적 전문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전달체계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 해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해외 주요 선진국의 법제 동향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단순한 시혜성 문화 여가 활동이 아닌, 독립적 자립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이자 보편적 권리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WIOA(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을 통한 고용 융합 체계나 영국의 선제적 편의제공 의무는 평생교육이 ‘생산적 복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의 제도적 성공 바탕에는 물리적 공간의 무장애화(BF)를 넘어 교육과정과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UD)과 보편적 학습설계(UDL)를 법적 규격으로 정착시켰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2025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선례를 거울삼아, 교육

인프라 전반에 UD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거점으로 삼는 구체적인 실행령 및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고용 연계 중심의 복합 법제와 보편적 설계의 의무화)

미국은 단일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는 대신, 성인 특수교육의 연장선인 전환교육 법제와 고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특별법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보장하고 있다. 그 핵심 축은 「장애인교육법(IDEA)」과 「혁신 및 기회법(WIOA)」, 그리고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이다.

-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본 법은 학령기 장애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나, 만 16세부터 학교 졸업 이후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 ‘전환 서비스(Transition Services)’ 체계를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내에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으로의 진입을 보장하는 제도적 관문 역할을 한다.
- 혁신 및 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성인기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산적 복지’를 견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WIOA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재정을 통합하여 성인 기초교육(Title II)과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Title IV)를 교차 지원한다. 특히, 장애 유형이나 저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 장애인을 ‘American Job Centers’를 통해 직업훈련 및 고등·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며, 성과 지표로서 경제적 자립과 고용 유지를 엄격히 관리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UD)의 법적 작동: 미국 법제 내에서 UD는 사후적 배려가 아닌 사전적 의무이다. 「재활법 제 508조(Section 508)」에 따라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디지털 플랫폼 및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웹 접근성(Web UD) 표준을 전면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고등·평생교육과정 설계 시 교육공학적 방법론으로서 보편적 학습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를 교수 매체와 평가 방식에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2) 영국: 포괄적 평등권 기반의 고등·평생교육 보장과 선제적 수정 의무

영국은 권리 중심의 포괄적 평등법 체계 안에서 장애인의 성인기 평생학습권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공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 법령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과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이다.

- 평등법(Equality Act 2010): 기존의 장애차별금지법(DDA)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를 보호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추가 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s)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들은 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입학 거부나 교육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 한다.
-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법: 본 법을 통해 국가가 성인 장애인 학습자의 교육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장애학생지원금(DSA, Disabled Students’ Allowances) 제도를 운용한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조공학 기기 구입비, 전문 튜터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 참여의 재정적 장벽을 원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UD)의 법적 작동: 영국의 「평등법」은 교육기관에 ‘선제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Anticipatory Duty to make Reasonable Adjustments)’를 부과한다. 이는 특정 장애인 학습자가 등록한 후 임시방편으로 시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사전에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예측하여 교육과정, 평가 방식, 물리적 인프라를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구축해 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시 간접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3) 일본: 지역사회 공생(共生) 사회 실현을 위한 범부처 융합 가이드라인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률 제도의 원천이 가장 유사한 국가로, 최근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핵심 근거는 「장애인기본법(障害者基本法)」과 문부과학성의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 지침(障害者の生涯学習推進基本構想)」이다.

- 장애인기본법: 제22조(교육)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해야 함을 법적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 지침: 문부과학성이 주도하는 이 지침은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이거나 중도 노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일본 정부는 지역의 공민관(公民館), 복지시설, 대학 부설 교육기관을 연계하는 거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공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 유니버설 디자인(UD)의 법적 작동: 일본은 전통적으로 물리적 환경 설계에 있어 배리어 프리(BF)와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가 가장 잘 이루어진 국가이다. 일본의 평생학습 추진 지침은 공간의 무장애화를 넘어, 지역사회 환경 설계(마치즈くり, まちづくり) 관점을 도입하였다. 휠체어 이용자의 회전 반경을 고려한 강의실 설계 공간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관적 정보 표지판(Pictogram UD)의 표준화를 평생교육 시설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3〉 주요국 장애인 평생교육 법제 및 장단점 비교

국가	주요 법제	장점	단점
미국(USA)	「장애인교육법」(IDEA) 「혁신 및 기회법」(WIOA) 「재활법」 제508조 보편적 학습설계(UDL) 의무화	강력한 고용 연계성: 교육부-고용노동부 재정 통합으로 ‘생산적 복지’를 실질적 구현.	단일 특별법의 부재: 평생교육만을 전담하는 독립 된 법률이 없어 부처 간 조정 필요. 사법적 소송 비용 부담: 학습자 권리 침해 시 개인 의 법적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성.
영국(UK)	「평등법」(Equality Act 2010)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법」 선제적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학생지원금(DSA) 운용	선제적 환경 구축 의무: 장애인이 입학하 기 전 사전에 인프라를 UD로 구축하도록 강제. 철저한 재정적 장벽 제거: 국가가 DSA를 통해 보조공학 및 튜터 비용을 전액 지원.	보편 교육과정 연계 미흡: 물리적·환경적 차별 금 지에는 강력하나, 세부적인 UDL 표준의 LMS 연 계는 대학별 편차가 존재. 예산 삭감에 따른 지속성 위기: 공공 재정 긴축 시 DSA 지원 규모가 축소될 위험성을 상시 내포.
일본(Japan)	「장애인기본법」 제22조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 지침 마치즈くり(공생 사회) 연계 직관적 정보 표지판(Pictogram)	지역사회 밀착형 거점화: 공민관, 대학, 복지시설을 촘촘하게 잇는 전달체계. 시니어 및 인지 UD의 강점: 고령 장애인 을 고려한 공간 설계 및 픽토그램 표준화 가 우수함.	지역사회 밀착형 거점화: 공민관, 대학, 복지시설 을 촘촘하게 잇는 전달체계. 시니어 및 인지 UD의 강점: 고령 장애인을 고려한 공간 설계 및 픽토그램 표준화가 우수함.

3. 대학과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례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학들은 보유한 고도의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자립과 직업고용으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 ‘Next Steps’

미국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Higher Education Act)을 바탕으로 TPSID(Transition and Postsecondary Program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라는 모델을 통해 전국 100여개 이상 대학에서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성인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교육과정의 특성: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대학 내에 2~4년 과정의 정식 비학위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 생산적 고용 연계: 장애인 학습자들은 일반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내 청강, 동아리 활동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직무 훈련 및 인턴십'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졸업생의 80% 이상이 지역사회 유관 기업에 실질적으로 고용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UD 측면의 시사점: 대학 내 모든 교수 매체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보편적 학습설계(UDL)를 기본값(Default)으로 적용하여, 교수자가 장애 특성에 맞춰 독립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표준화되어 있다.

2) 오픈 대학교(The Open University) 'SHLD(Social History of Learning Disability) 그룹'

영국은 원격교육과 지역거점 대학의 강점을 결합하여 성인 장애인의 학습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 교육과정의 특성: 영국 최대의 원격 평생학습 대학인 오픈 대학교는 학습 장애(Learning Disabilities)를 가진 성인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허브 체계를 구축하였다.
- 당사자 주도 및 디지털 포용: 장애인을 단순히 교육의 '수혜자'로 보지 않고, 연구의 공동 협력자(Co-researchers)로 참여시킨다. 예를 들어, 구어 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 성인들이 자신의 생애사를 디지털 만화(Manga life stories)나 시각 매체로 표현하고 창작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 UD 측면의 시사점: 영국의 평등법에 따른 '선제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LMS 플랫폼에 반영하여, 시각·청각·인지 장벽이 없는 디지털 포용성(Web UX)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전 세계 대학에 제시하고 있다.

3) 일본의 도쿄 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RCAST) 'DO-IT Japan'

일본은 대학의 첨단 연구소와 글로벌 기업, 지자체가 결합된 장애인 디지털 자립을 지원하는 모델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교육과정의 특성: 도쿄대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IT 기업과 연계하여 장애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ICT 기반 평생학습·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장벽 극복: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신체적·인지적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집중 교육 한다. 중증 장애나 노인성 장애를 가진 학습자가 스마트 기기, 시선 추적 장치, AI 보조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고 의사를 소통하며, 나아가 고도화된 디지털 직무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 UD 측면의 시사점: 물리적 배리어 프리(BF)를 넘어, 기술을 통해 개인의 기능을 보완하는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Assistive Technology) 기반의 UD'는 대학 평생교육 시스템의 우수한 사례이다.

III. 유니버설디자인과 장애인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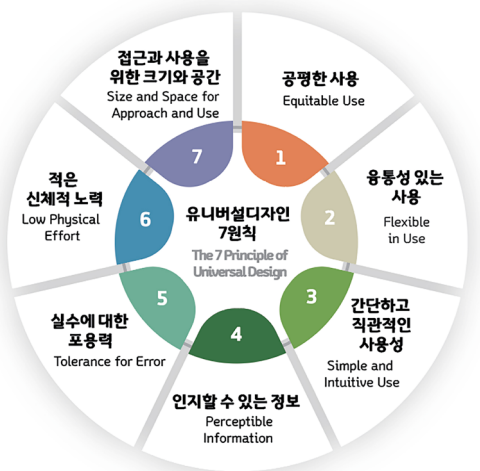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적·제도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포용적 설계 원칙이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UD 적용은 단순히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하고 사회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방법론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환경구축

1) 물리적 환경의 보편적 환경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원의 물리적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인 공평한 사용성(Equitable Use), 융통성 있는 사용(Flexibility in use),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성(Simple and intuitive use), 인지할 수 있는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실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 적은 신체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을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 보장의 최우선 과제이다. 강의실, 실습실, 휴게 공간 등에 이르는 모든 시설은 지체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장애 유형을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습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 기반이 된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물리 환경은 교육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 물리적 토대가 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원의 물리적 환경은 학습자의 접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를 위해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보편적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BF 인증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시공 후 운영까지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체계로, 평생교육원의 교육적 완결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물리적 기반이 된다.



[그림 1] 유니버설디자인의 7대 원칙

첫째, 연속적 접근로와 경사로의 표준화로 평생교육원 진입로에서부터 강의실에 이르기까지 단차 없는 연속적 이동 동선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경사로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표준 기울기를 준수해야 하며, 미끄럼 방지 소재와 손잡이(Handrail)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이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학습자의 교육 참여 의지를 고취하는 심리적 안정성으로 작용한다.

둘째, 엘리베이터 및 수직 이동 수단의 접근성이다. 다층 구조의 평생교육원 내에서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다.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내부 공간 확보는 물론, 저시력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및 점자 표지판,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조작반 설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UD적 접근은 정보와 이동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학습자의 독립적인 시설 이용을 보장한다.

셋째, 유니버설 화장실은 장애인 학습자의 체류 시간과 교육 몰입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이다. UD가 적용된 화장실은 휠체어 활동 반경을 고려한 충분한 내부 면적과 더불어, 세면대 하부 공간 확보, L자형 및 수평 손잡이,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호출 버튼 등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자동문 설치와 직관적인 사인 시스템(Sign System)은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인지 장애 및 고령 학습자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

2) 보편적 학습설계

보편적 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는 학습자의 개별적인 인지적·감각적 특성에 맞춰 교육 과정(Curriculum) 자체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의 제시 방식(Representation), 학습자의 표현 방식(Action & Expression), 학습 참여 동기 부여(Engagement) 수단을 다각화함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UDL이 적용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 개인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습득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보다 효과적으로 내면화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역량으로 전환되도록 돕는다.

UDL의 3대 핵심 원칙과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방식의 정보 제시로 시각적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청각 정보의 시각화(자막·수어), 복잡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픽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이는 시·청각 장애 학습자뿐만 아니라 인지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 모두에게 정보의 가독성을 높여준다.

둘째,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도를 증명하는 수단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지필 시험 위주에서 벗어나 구두 발표, 디지털 포트폴리오 제작, 예술적 결과물 제출 등 학습자가 자신의 강점에 맞는 방식으로 성과를 표출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다양한 방식의 참여와 동기 부여이다. 학습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협력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병행하여 학습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이는 학습 몰입도를 높여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교육의 완결성을 제고한다. 캐나다 모호크 대학(Mohawk College)은 대학 전체 교육 과정에 UDL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든 강의 자료를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의 다중 형태로 제공하고, 평가 방식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결과,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학생 및 성인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이 입증되었다.

3) 직업 연계로서의 유니버설디자인

현대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UD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성과가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Web UD)은 장애인 학습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교육 정보를 탐색하고 구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나아가 디지털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에 UD를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이 자신의 직무 역량이나 예술적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처럼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기반의 UD는 교육 서비스의 완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직업적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고용 평등을 구현하는 중추적인 디지털 인프라로서 기능하게 된다.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확보는 장애인 학습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교육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구인 정보를 수집하며,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 최적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어 통역, 지체장애인을 위한 키보드 전용 컨트롤 기능 등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설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UD는 장

애인 학습자가 정보 검색과 활용 과정에서 겪는 배제와 소외를 방지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노동 시장 진입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2. 온라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디지털 포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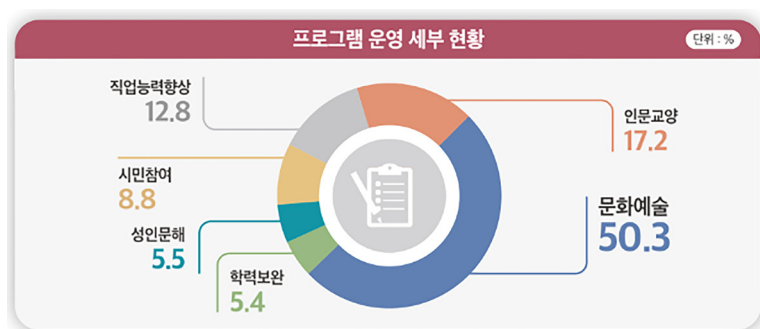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온라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현장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가진 잠재력과 실효성은 이미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활발히 검증되고 있다(김성완 외, 2021). 장애인에게 있어 온라인 평생교육은 단순한 학습 매체의 변화를 넘어, 신체적·물리적 이동의 제약을 극복하고 고등교육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교육적 통로로 기능한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 환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학습 환경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D)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 매체를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플랫폼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 평가 방식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정보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포용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정보 통신 기술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기술적 실천이며, 이를 통해 실현되는 디지털 포용성은 장애인이 정보화 사회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게 하는 핵심 동인이 된다. 따라서 온라인 평생교육의 UD 기반 고도화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학습자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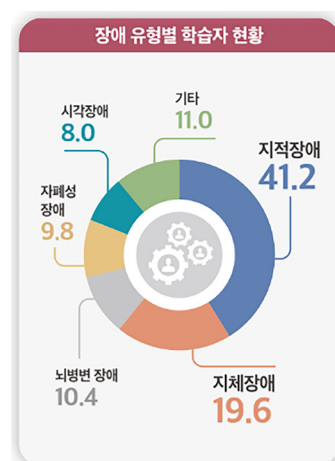
1)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학습

시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학습 환경은 텍스트 정보의 음성 출력(Screen Reader)과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정보의 다중 표현이 핵심이다. 키보드 중심의 문서 구조로 시각적 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학습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학습 콘텐츠에 접근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정보 접근의 장벽을 제거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물리적·디지털적 토대가 된다. 이처럼 온라인 학습은 시각장애인에게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지대한 교육적 효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그림 2] 프로그램 운영세부현황(2024)



[그림 3] 장애유형별 학습자 현황(2024)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습 현장에서는 여러 심리적·사회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교수자와의 즉각적인 피드백 교환이 어렵고, 학습자들과의 유대감 형성 기회가 부족하여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의 결여와 공동체 의식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접근성 제한은 학습 과정에서의 불편을 가중시키며, 이는 학습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학업 중단 위기로 이어지기도 한다(이순민, 오윤진, 2014).

특히 현대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점차 화려한 그래픽,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시각 위주의 인터페이스로 고도화됨에 따라, 적절한 대체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시각장애 학습자들은 오히려 ‘디지털 소외’의 심화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픽 중심 인터페이스(GUI)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은 학습 만족도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지원을 넘어, 인지적 부하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포괄적 유니버설 디자인(UD) 기반의 온라인 학습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2)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학습

청각장애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핵심은 음성 정보가 시각적 정보로 완전히 치환되거나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다중적 표현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다. 모든 동영상 및 음성 기반 콘텐츠에는 실시간 자막이나 패쇄 자막(Closed Captioning, CC)이 필수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전문 수어 통역 영상을 병행 배치함으로써 소리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청각장애 학습자가 비장애 학습자와 동등한 정보량을 동시성에 기반하여 획득하게 하는 교육적 평등의 실현이다(임진이, 2021).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내에서의 상호작용 및 시스템 알림 역시 시각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야 한다. 교수자의 실시간 강의나 시스템 점검 등 학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시각적 경보(Visual Alerts)나 팝업 알림 등 직관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는 청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습자가 교육 과정의 진행 상황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청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D)은 교수자의 구어(口語)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화면 구도 확보와 시각 자료의 가독성 증대까지 포괄해야 한다. 자막과 수어 통역이 화면의 주요 콘텐츠를 가리지 않도록 최적의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웹 접근성(Web UD)의 고도화는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정보 습득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결과적으로 청각장애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온라인 환경은 정보의 장벽을 낮추어 이들이 능동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게 하는 실천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

3)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약 41.2%, 자폐성장애 9.8%(국립특수교육원, 2024)에 달하여 이들을 포함하는 발달장애는 전체의 약 5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24). 이처럼 발달장애 학습자가 평생교육의 핵심 수요층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적·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겪는 장벽은 더욱 넓다(김현진, 2021).

발달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학습은 인지적 부하를 최소화하는 인터페이스 설계와 ‘쉬운 언어(Easy-to-read)’ 및 시각적 아이콘의 전략적 활용이 핵심적이다. 복잡한 조작 단계를 단순화하고 직관적인 내비게이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콘텐츠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지적장애 학습자의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 성취감을 고취하는 필수적인 방법론이 된다(이양숙 외, 2023).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는데, 이는 발달장애 학습자가 해당 영역에서 높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데 중요한 학술적·실천적 의미를 지닌다(장오선, 김려원, 전병운, 2019).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온라인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유도하는 시각적 자극을 정교하게 배치하는 등 발달장애 학습자만을 위한 특화된 교수 전략이 요구된다. 학습자의 감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강화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심리적 유대감인 라포(Rapport)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 중 78.1%가 부모인 실태(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를 고려할 때, 온라인 학습 시스템은 보호자가 학습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력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능까지 포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UD 기반 온라인 교육은 인지적 장벽을 허물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생산적 복지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4)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과 시니어UD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행정안전부, 2025)하였다. 또한 전체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56.9%, 보건복지부)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26).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노인 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고도의 특화된 접근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은 노화로 인한 이차적인 신체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적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 모델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돌봄(Care)’과 ‘학습(Learning)’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 장애인 학습자는 일반적인 장애인 집단과 비교하여 이동성의 급격한 저하와 시·청각 기능의 감퇴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평생교육원의 물리적 환경 구축은 기존의 법적 의무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준을 상회하는 시니어 유니버설 디자인(Senior UD)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 노인 장애인이 타인의 조력 없이 독립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중추적인 물리적 토대로 작용한다.

나아가 노인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지식 습득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통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에 건강 관리와 재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포함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노년기의 의료비 절감과 복지 의존도 완화로 이어지는 예방적 복지 기제로서 기능한다. 동시에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 역량은 노인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봉사나 일자리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며, 이는 사회적 수혜자에 머물렀던 노년기 장애인을 능동적인 사회적 기여자로 전환시키는 ‘생산적 복지’의 실천적 사례가 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도 고도의 사용자 경험(UX)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력 저하와 인지 기능의 감퇴를 고려하여 텍스트 크기의 가변적 조절, 고대비 모드의 제공, 그리고 충분한 반응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기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디지털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적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하여 직관적이고 오류가 적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로 인한 사회적 소외를 미연에 방지하고, 디지털 기반의 평생학습을 통해 노인 장애인이 자립적인 사회 연결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IV. 결론

장애인 평생교육은 의무교육과는 달리 학습자의 참여가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는 참여자의 확대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와 성과가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에서 35.8%(한국장애인개발원, 2021)가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역할 중 장애인이 배움을 위해 지역사회로 나오고, 의지를 갖기 시작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며, 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함께 무기력과 퇴행에서 벗어나며 가족들에게 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2025년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권리 중심’ 패러다임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UD)의 적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은 과거의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자립과 고용을 견인하는 ‘생산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토대가 유니버설 디자인임을 규명하였다. 특히 장애 유형별(시각, 청각, 발달장애) 및 생애주기별(노인 장애인) 인지·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UD는 학습권 보장을 넘어 사회 참여를 위한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안착시킨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평생교육이 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확인하였다. 단순 취미와 여가중심의 국내 장애인 평생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거점으로 하여 초기 인프라 단계부터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기획되어야 한다.

셋째, 성공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UD 적용은 물리적 환경, 교육 과정, 디지털 플랫폼의 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법적 BF 인증을 상회하는 시니어 UD의 도입이, 교육 과정에서는 보편적 학습설계(UDL) 기반의 다중적 정보 제시가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웹 접근성(Web UD)을 고도화하여 장애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직업 연계의 핵심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대학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를 활용한 ‘대학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원’이 교육-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주도하는 ‘전달체계의 허브(Hub)’로서 최적의 거점임을 도출하였다. 대학의 다학제적 연구 역량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수법 개발과 전문 직무 교육을 가능케 하여, 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사회 기여자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고찰을 중심으로 UD 적용의 이론적·실천적 모델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실제 현장의 학습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출된 UD 적용 방안이 학습 만족도 및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2024). 2024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https://www.nise.go.kr/life-long/sub/info.do?m=100201&s=lifelong>
- 교육부(2019).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2215>
- 교육부(2026). 평생교육법. <https://law.go.kr/LSW/lInfoP.do?lsId=000851#0000>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룡, 유기웅, 이경준, 허선주, 김원호, 박미진, 조민제, 김희수, 허유진(2025). 장애성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기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김성완, 김병진, 정동훈, 채희태, 박종화(202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 및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4(4), 147-169.
- 김영준(2022). 성인계속교육 관점에서 본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장애인복지연구, 13(2), 86-133.
- 김현진(2021). 코로나19 상황 속 발달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 실태와 개선방안: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6), 350-358.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26). 2025년 등록장애인 262만 8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145
- 이미현, 박성지(201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현황과 욕구: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3), 191-214.
- 이순민, 오윤진(2014). 시각장애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온라인 학습만족의 관계 연구: 학습내용의 적절성과 온라인 학습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30(4), 233-254.
- 이양숙, 임진이, 양종국, 신서영(2023). 장애학생들의 교육능력 향상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8(4), 233-240.
- 임진이(2021). 온라인 교육환경에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6(2), 111-120.
- 장오선, 김려원, 전병운(2019).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가 인식하는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의 의미: 메타포(Metaphor) 분석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21(4), 43-68.
- 정연수(2025). 장애인평생교육 교육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인식연구. 직업재활연구, 35(3), 109-137.
- 조창빈, 김두영, 이상진(2018).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1), 195-217.
- 최진아, 이상무(2025).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 요인 분석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16(2), 173-196.
- 한국장애인개발원(2021). 2021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5).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https://www.lead.or.kr/bbs/presearch/bbsView.do?bbsCnId=206264&menuId=MENU0785>
- 행정안전부(2025.12.24.). 국내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초고령 사회’ 진입. 동영상뉴스.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MSMSTR_000000000255&nttId=114652
- 황순영, 조창향, 김시현(202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장애인 평생교육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실무자 인식.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 7(4), 83-107.